

애들아, 우리 함께 책 읽으러 가자

겨울방학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활발... 독서·철학캠프, 독서여행 등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을 책 앞에 모이게 한 독서 프로그램이 여럿 열렸다. 공공도서관과 출판사·서점이 마련한 올 겨울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은 과거의 '책 읽고 독후감 쓰기' 같은 경직된 형태를 벗어나 철학캠프, 작가탐방, 구연동화 익히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참가인원이 적어 취소되는 바람에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놀이개념으로 접근한 독서캠프

일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어울리는 독서캠프는 독서를 공부의 연장이 아닌 놀이 개념으로 접근한 새로운 독서 프로그램. 최근에는 각종 문화단체나 공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독서캠프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교보문고(대표 류 건)와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이 공동으로 주최한 '97 전국 초등학생 겨울독서캠프'와 올해 현암사(대표 조근태)가 《그림따라 철학하기》의 출간과 함께 기획한 "한교수와 함께 하는 겨울방학 철학캠프", 어린이철학연구소(소장 박미규)가 준비한 "철학캠프" 등이 대표적인 독서캠프다.

교보문고는 4회째를 맞은 자사 주최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 40명을 모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독서캠프를 열었다. 춘천 근처에 있는 김유정문학비 탐방, 소양댐 견학과 함께 하루 4시간씩 책을 읽고 강의도 들었다.

아동문학가 정채봉씨의 '동화의 나라'와 김서정씨의 '좋은 책 고르는 법' 등의 강의가 있었고, 어린이책 출판사 대교의 편집차장인 진영희씨가 준비한 '한권의 책이 출판되기까지'도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행사 담당자였던 황정완 대리(조사홍보과)는 "관심이 있는 어린이가 모여서인지 책 한권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에 특히 열기가 높았다"고 전한다. 처음으로 시행한 독서캠프였지만 호응이 높아 사정을 보아 정기캠프화도 구상 중이다.

한편 책과 글쓰기를 매개로 생각하는 어린이로 키워줄 철학캠프 두 건이 참가자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현암사는 1월 12

일부터 14일, 14일부터 16일, 2박3일씩 두 차례에 걸쳐 충북 보은 서당골에서 "한교수와 함께 하는 겨울방학 철학캠프"를 기획했다. 그림을 보며 어린이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기도, 바꾸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한교수의 그림따라 철학하기》 총 6권을 펴낸 후 저자 한상우 교수를 비롯,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김진경·황현경씨와 함께 하는 '놀면서 공부하는' 캠프였다.

갖가지 재료를 이용한 그림으로 생각한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꾸며진 이 캠프가 무산된 데는 학부모들의 편견이 영향을 미쳤다. 현암사 철학캠프 담당자는 "적은 인원이라도 캠프를 하자는 것이 출판사 측이나 선생님들의 생각이었지만 참가자가 적다는 말에 신청했던 학부모들이 줄줄이 취소했다"고 사정을 전한다.

어린이철학연구소가 1월 8일부터 2박 3일로 충북 괴산 고사리 마을에서 개최하려던 철학캠프 역시 철학전공자들이 작문과 올바른 대화법, 문제해결력 기르기, 고전강독 및 토론 등으로 알찬 커리큘럼을 짰지만 외면당하고 말았다. 독서캠프가 컴퓨터나 영어교실처럼 눈에 확 드러나는 교육적 효과도 없고, 스키캠프나 농구교실이 갖는 흥미진진한 놀이 요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뿌리내린 독서여행,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방학 동안 어린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캠프의 종류는 점점 늘어가는데 비해, 과거에 대중을 이루었던 독서프로그램은 설 자리를 잃는 듯하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잡은 방학 독서프로그램도 있다.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이라는 모토를 적극적인 활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이사장 조영환)은 매년 겨울방학마다 동화작가를 찾아 떠나는 "독서여행"을 마련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독서여행은 그간 하루 혹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양산의 이원수, 청주의 이금미, 얼마전 작고한 임길택 작가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1월 14일 하루 일정으로 《바보와 바보》, 《참나무 선생님》,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등을 쓴 동화작가 박상규씨를 찾아 충주로 떠났다.

작가를 직접 만나 동화 속 이야기와 실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책 앞으로 불러들이는 독서프로그램이 캠프, 독서여행 등 다양하게 열렸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참가인원 부족으로 취소되기도 해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어린이도서관이 마련한 독서교실에서 동화구연을 실습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이들(위). 지난 연말 교보문고가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개최한 독서캠프(아래).

이야기를 들어보고, 궁금했던 여러가지를 묻고 답하는 자리가 될 독서여행은 '작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충주 박물관, 통일신라석탑 등 주변의 문화유적도 함께 돌아볼 수 있도록 진행해 다채로움을 더했는데,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받았다.

전국 공공도서관들 역시 매년 해오던대로 독서교실을 열어 많은 어린이들을 끌어들였다. 작게는 2만여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정도까지 회비를 내야 하는 여러 캠프와 비교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독서교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국에 270여곳이나 되는 공공도서관들은 1월 5일경부터 1월 20일 사이에 5일간 혹은 열흘까지 독서교실을 개최했다. 모집인원은 한 반에 50명 안팎으로 두 반을 넘지 않고, 하루 4시간 정도씩 책 고르는 방법, 독후감 쓰기와 시 작법, 도서관 이용법 등의 강의와 독서감상화 그리기, 독후감 발표회 같은 실습으로 운영된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게 해 책과 친해지도록 유도했다.

마포도서관(관장 박종량)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문활용교육(NIE)을 커리큘럼에 편성해 관심을 끌었고, 마지막날 그간 읽었던 책에서 출제된 독서퀴즈를 마련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집중시켰다. 송파도서관(관장 명성일)은 매달 발행하는 도서관 소식지에 '자녀독서지도'라는 고정코너를 두어 독서활동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관장 이숙자)은 독서교실에 뒤이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동화구연교실을 열어 재미있게 책읽는 방법을 제시했다.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는 동화구연교실은 참가자들이 동화구연을 실제로 해볼 수 있어 '이야기 들려주기'라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

독서는 어린이들에게 온갖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비교적 경제적인 방법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별다른 놀이감이 없었던 과거에는 독서교실이 긴긴 겨울방학의 이벤트가 될 수 있었지만, 갈수록 세분화·특성화하는 각종 어린이 캠프에 독서캠프는 밀려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확장관 상임이사는 "독서캠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책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현주 기자